

나는 에이즈 상담원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센터는 에이즈 감염인과 환자들을 위한 가정공동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염인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도 포용하여 고민이나 의문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격려와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소이다. 수용인원이 적고 장기체류는 불가능하지만, 잠시나마 감염인들이 '함께'를 편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넓터이다.

시간은 참 잘도 간다 싶다. 3월인가 싶더니 어느새 6월이 훌쩍 다가왔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겨울의 막바지에 다다랐던 2월 26일 출근 첫 날까지도 내게 있어 에이즈는 완치제는 없지만 치료제는 있는 병, 4가지 감염원 외에는 옮기지 않으니 조금 조심만 하면 되는 병이었다. 나 역시도 이전에 아무리 에이즈 교육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머리로 이해했지만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흔히들 가지는 편견을 한 칸에 가지고 있는 한국인 중의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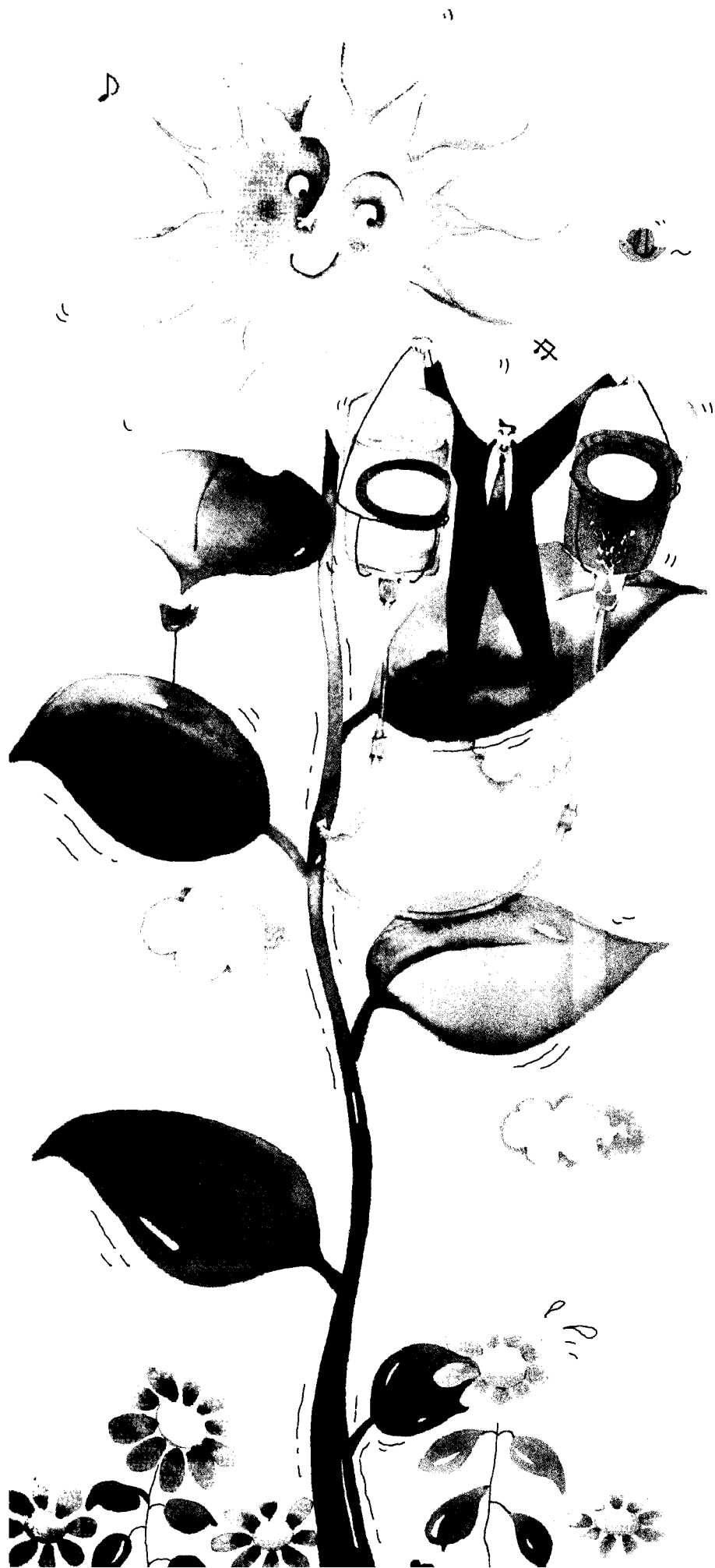
그런데 운이 좋게도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겠나?"는 제의가 왔다. 난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스스로에게 100%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런 나를 센터 식구들이 오히려 걱정해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내가 만난 감염인들이 사회의 편견으로 고립되었지만, 그 덕에 더 순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편견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있기도 한 사람들이다.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여전히 에이즈하면 떠올리는 무수한 이야기들은 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전 체천에서 에이즈 사건이 있었다. 실제로 내가 만

난 에이즈 감염인들은 변태성욕이 있다거나 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들 지극히 평범하시고, 대부분 비감염인보다 오히려 자기관리를 잘하고 더 깔끔한 편이다. 체천의 택시 기사분 개인의 성적 취향과 범죄행위 때문에 다수의 감염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아프면 사람들은 병원에 간다. 어디가 아프다고 하소연하고, 주변에선 으레 걱정을 한다. 병에 걸렸다고 그 사람을 떠나거나 왜곡된 시선으로 삐딱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성질환이라 병원과는 의절할래야 의절할 수 없는 처지인데, 입원을 하게되면 보통 물어보는 "어디가 아파서 입원하셨어요?"라는 질문에 쉬어 대답할 수가 없다. 사실대로 말하고 위로받을 수가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내가 감염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아픈 것만해도 서러운데 그 조차 표현할 수도, 위안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애통할지 생각하기조차 겁이 나는데, 이를 여러 번 반복한다는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다. 무균실에 있는 백혈병환자들처럼 이분들도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주어야 할텐데 도리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에이즈=죽음'이라는 공식으로 대개 처음 감염 사실을 알게되면 곧 죽을 거라 생각을 하고 주변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에이즈는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이라 관리만 잘하면 몇 년, 몇 십년을 살 수가 있다. 완치제는 없지만 치료제가 있으니 말이다.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가 있었다면 감염되기 이전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들도 분명 우리사회의 피해자이다.

쉽터에는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새도 모두 다른 식구들이 찾아온다. 그래서 시시콜콜 사람 사는 곳이면 으레 그렇듯, 그런 일상들이 살아있다. 처음 쉽터 식구들을 보던 날, 어색함 속에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 침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배웠지만 이야기만 듣던 감염인들을 처음 만나다보니 불안감이 쉬이 떨쳐지지 않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다음날도 계속 AIDS관련 글들을 읽으면서 속으로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 편견을 타파하려면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줌과 동시에 이들과 직접 만나다보면 머리에 늘 박혀있던 고정관념은 충분히 바뀔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들은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각자의 개성을 가진 한국 사람이고, 다만 에이즈라는 병에 걸린 것뿐이다. 암에 걸린 사람이 무슨 죄를 짓거나 인생을 잘못 살아서 병에 걸리는 건 아니지 않은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에이즈라는 이름을 이유로 에이즈 감염인들이 차별받지 않을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해본다. 1